

부산지역의 외식실태조사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외식 성향

김 두 진

경남전문대학 식품영양과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for Dining-out in Pusan 1. The Propensity to Dining-out According to Age Groups and Sex Distinction

Doo-Jin Kim

Dept. of Food and Nutrition, Kyongnam Junior College, Pusan 616-701,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actual condition of dining-out and the propensity to dining-out according to age groups and sex distinction in Pusan area. The survey was conducted on 464 peoples who live or work, including students aged more than 4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in Pusan area.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s are as follows.

The survey on dining-out time indicated that most of peoples like to dine out at supper time more than at luncheon. The motivations of dining-out were in order of the time going out with family, having party and meeting with friends. Restaurants used frequently at luncheon time were in order of flour food shop, Chinese-style food shop and Korean-style food shop, and at supper time were in order of Korean-style food shop, roast rib shop and Chinese-style food shop. The survey on dining-out cost indicated that 71.88% of respondents were payed out less than 4,000 won per one person at luncheon, but 54.67% of them were payed out more than 5,000 won at supper. The reasons of preffering food shop used first were in order of delicious taste, sanitary circumstance and economical price, and of no preffering food shop used first were untasty, un-sanitary circumstance and expensiveness.

But, the results of the propensity to dining-out were different according to sex distinction, age groups and jobs.

Key words : dining-out, propensity to dining-out, Pusan area

서 론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식 기회의 증가일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중 외식비가 1987년에 비하여 1992년에는 5년 사이에 무려 3.7배의 신장세로

증가한 것¹⁾과 식료품비중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평균 수입 및 소비지출액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신장율을 나타내는 것²⁾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외식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이유 중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가정수입의 더불어, 핵가족화, 자녀수의 감소, 독신자의 증가, 중산층의 증가, 화려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갖춘 국내의 외식업체의 등장, 다양한 메뉴의 개발 등^{3~5)} 외식을 유발하는 요인이 많아진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 외식관련 기업은 물론 중, 소업체의 외식업에 대한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형

태의 음식점과 메뉴가 개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4, 6, 7)} 고객층도 국민학생에서 부터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져서 고객의 성별과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음식에 대한 기호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외식의 동기 또는 목적, 소득수준, 지역, 주머니 사정 등에 따라 선택하는 음식이 다를 것이므로 업체에서는 고객층의 분포와 취향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산지역의 외식실태를 파악하여 현재 외식업을 운영하거나 앞으로 운영하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져 외식 시기, 동기, 비용, 잘 가는 음식점의 종류, 그리고 한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가게 되는 이유와 가지 않게 되는 이유 등의 외식성향을 성별과 연령별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전보⁸⁾와 마찬가지로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국민학교 4학년 이상의 남녀 464명을 본교 교수들과 학생들의 협조를 얻어 본인들을 제외한 조사자의 친지들을 대상으로 '93년 10월과 12월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부산시민의 외식 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식을 하게 되는 동기, 시기, 비용, 음식점의 종류, 위치 및 한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가게 되는 이유와 가지 않는 이유 등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고 성별과 연령 그리고 직업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단, 본 설문조사에서의 외식이라 함은 집단급식소(기숙사, 학교, 병원, 후생기관 등)와 각 직장의 구내식당을 제외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에서의 식사만을 의미합니다.

3. 조사방법 및 분석

전보⁸⁾에서와 같이 식행동은 성별과 연령, 직업, 생활정도 그리고 거주 및 생활권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일반사항에서 성별, 나이, 직업,

Table 1. 일반사항 (단위 : 명)

구 분	남	여	계	비고
성별	244	220	464	
국민학생	23	28	51	학생층
중학생	24	28	52	
고등학생	22	25	47	
연령				
대학생	32	29	61	청년층
20대	29	32	61	
30대	43	34	77	장년층
40대	39	25	64	
50대 이상	32	19	51	
직업				
학생	102	107	209	
공무원	24	15	39	
회사원	62	19	81	
상업	18	8	26	
사업	18	1	19	
주부	0	56	56	
기타	13	8	21	
무응답	7	6	13	

생활정도 및 현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며, 연령은 외식 수준과 시대적 동질성을 고려하여 국민학생(판단능력을 고려하여 4~6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중학생, 고등학생(이상을 학생층), 대학생, 20대(생활환경과 소득수준의 차이로 대학생과 구분 : 이상은 청년층), 30대,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이상은 장년층)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Table 1). 분석은 성별과 연령간의 비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직업, 생활정도 그리고 거주지에 따른 결과가 뚜렷한 차이를 보일 경우 고찰에서 논하였다.

4. 조사내용 처리

본 조사의 통계분석으로는 빈도분석(frequency distribution)을 위주로 한 서술적 통계방법(descriptive statistics)을 사용하였고, 빈도수, 백분율 등의 통계처리는 dBSTAT⁹⁾에 의해 처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외식시기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식을 하는 시기는 아

Table 2. 외식을 하는 시기

(단위 : %)

	국교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N	49	52	47	61	61	77	64	51	462
아침	0.00	0.00	0.00	0.00	0.00	0.00	1.56	0.00	0.22
점심	10.20	17.31	29.79	27.87	13.11	11.69	20.31	35.29	20.13
저녁	71.43	67.31	38.30	24.59	47.54	61.04	34.38	23.53	46.10
점심과 저녁	18.37	15.38	29.79	47.54	37.70	24.68	43.75	37.25	32.25
매끼마다	0.00	0.00	0.00	0.00	1.64	1.30	0.00	0.00	0.43

Table 3. 대학생과 50대의 외식 시기 (단위 : %)

구분	대학생		50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N	32	29	32	19
아침	0.00	0.00	0.00	0.00
점심	21.88	34.48	31.25	42.11
저녁	28.12	20.69	28.12	15.79
점심과 저녁	50.00	44.83	40.62	31.58
매끼마다	0.00	0.00	0.00	0.00

침이 0.22%, 점심이 20.13%, 저녁이 46.10%, 점심과 저녁 모두가 32.25%로 아침에 외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심과 저녁 때에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으로는 점심 때(점심 + 점심과 저녁 : 약 66%) 보다 저녁 때(저녁 + 점심과 저녁 : 약 78%)에 외식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과 50대 이상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점심 때 외식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과 50

대 여성이 다른 연령층과는 달리 점심 때의 외식 비율이 저녁 때 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과 조¹⁰⁾의 여대생의 외식시기는 저녁보다 점심이 높았다는 결과와 같았으며, 50대 여성들은 가족들이 귀가하는 저녁시간을 피하여 낮에 친구들을 만나거나 모임을 하면서 외식을 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외식동기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식을 하게 되는 동기는 가족끼리 외출을 하였을 때 외식을 하는 가족외식이 전체의 48.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모임이 있을 때(40.04%), 친구와 만날 때(33.74%) 순이었다.

이와 같이 가족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다른 외식 동기보다 가족외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층(국교생, 중학생, 30대)의 인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조사와 같이 응답자수에 의하지 않고 외식동기별로 빈도수를 조사한다면 그 결과는 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생활수준의

Table 4. 외식 동기

(단위 : %)

	국교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N	49	52	47	61	61	77	64	51	462
끼니 해결 ¹⁾	14.29	21.15	31.91	65.57	36.07	18.18	28.12	35.29	31.39
친구 만날 때 ²⁾	2.04	17.31	53.19	55.74	57.38	31.17	20.31	29.41	33.77
친지 방문시 ³⁾	18.37	17.31	6.38	0.00	1.64	2.60	7.81	7.84	7.14
모임 있을 때 ⁴⁾	14.29	25.00	14.89	34.43	44.26	33.77	73.44	72.55	40.04
가족 외식시 ⁵⁾	85.71	71.15	36.17	16.39	40.98	70.13	39.06	29.41	48.70

복수선택

주: 1) 주로 끼니를 떼우기 위해, 2) 친구와 만났을 때, 3) 친지나 친구가 집에 왔을 때, 4) 모임이 있을 때, 5) 가족끼리 외출을 하였을 때.

Table 5. 가족외식 비율 (단위 : %)

연령별	남 자	여 자
국교생	86.96	84.62
중학생	66.67	75.00
고교생	36.36	36.00
대학생	18.75	13.79
20대	34.48	46.88
30대	58.14	85.29
40대	38.46	40.00
50대	28.12	31.58

향상으로 인한 외식빈도의 증가, 자동차 보유율의 증가, 가족 중심적인 생활패턴으로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족외식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는 최근 패밀리 레스토랑(family restaurant)의 수가 증가하고 번창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¹¹⁾. 가족외식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교생(85.71%)과 중학생(71.15%) 그리고 이들 연령층의 부모들인 30대(70.13% : 30대 여자는 85.29%)에서 높은 반면에 자신들의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고교생과 대학생, 그리고 그들의 부모 연령층에서는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젊은 층인 고교생, 대학생, 20대는 친구와 만날 때(각각 53.

19%, 55.74%, 57.38%), 장년층인 40대와 50대는 모임이 있을 때(각각 73.44%, 72.55%)에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외식 동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3. 자주 가는 음식점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심 때 자주 가는 음식점 중 3곳을 선택하는 경우 가장 자주 가는 곳은 분식집(52.71%)이고 다음으로 중국집(50.23%)과 한식집(49.10%)순이었으며, 연령별로는 국교생은 중국집(48.98%),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은 분식집(각각 58.70%, 89.36%, 85.25%), 그리고 20대, 30대, 40대, 50대는 한식집(각각 67.86%, 57.89%, 78.33%, 84.00%)을 가장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령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Table 7은 점심 때 자주 가는 음식점의 순위를 정리한 것으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순위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역시 분식집, 중국집, 한식집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국교생 남자는 햄버거점과 치킨점, 국교생 여자와 30대 남자는 갈비집, 중학생과 고교생 남녀 모두는 햄버거점(중학생 여자는 햄버거점과 스텍집), 30대 여자는 경양식점, 그리고 50대 여자

Table 6. 점심 때 자주 가는 음식점

(단위 : %)

	국교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N	49	46	47	61	58	76	60	50	447
스텝 집	18.37	32.61	23.40	26.23	17.24	7.89	1.67	0.00	15.38
분식 집	26.53	58.70	89.36	85.25	56.90	42.11	38.33	22.00	52.71
중국 집	48.98	41.30	51.06	55.74	51.72	35.53	56.67	60.00	50.23
한식 집	16.33	13.04	10.64	47.54	62.07	57.89	78.33	84.00	49.10
갈비 집	32.65	19.57	6.38	3.28	22.41	38.16	28.33	34.00	23.98
일식 집	8.16	2.17	0.00	0.00	0.00	11.84	10.00	12.00	5.88
한식 부페점	14.29	8.70	4.26	4.92	1.72	19.74	15.00	26.00	12.22
양식 부페점	12.24	2.17	4.26	0.00	1.72	2.63	3.33	2.00	3.39
경양식집	14.29	17.39	17.02	21.31	22.41	30.26	18.33	4.00	19.23
횃 집	14.29	10.87	8.51	3.28	15.52	27.63	30.00	20.00	17.19
피자점	10.20	13.04	0.00	3.28	6.90	3.95	0.00	0.00	4.52
햄버거집	28.57	52.17	51.06	22.95	18.97	1.32	1.67	0.00	20.14
치킨점	20.41	19.57	8.51	0.00	3.45	2.63	0.00	0.00	6.11
족발 집	6.12	0.00	0.00	1.64	3.45	5.26	1.67	0.00	2.49
쇠고기부페	2.04	0.00	4.26	3.28	0.00	0.00	6.67	2.00	2.71

Table 7. 점심 때 자주 가는 음식점 순위

(단위 : %)

연령별	성별	N	1순위		2순위		3순위	
			종류	%	종류	%	종류	%
국교생	남자	23	중국집	39.13	햄버거점	39.13	치킨점	26.09
	여자	26	중국집	57.69	갈비집	42.31	분식집	30.77
중학생	남자	22	분식집	59.09	중국집	54.55	햄버거점	50.00
	여자	24	분식집	58.33	햄버거점	54.17	스낵점	37.50
고교생	남자	22	분식집	95.45	중국집	72.73	햄버거점	50.00
	여자	25	분식집	84.00	햄버거점	52.00	중국집	32.00
대학생	남자	32	분식집	78.12	중국집	56.25	한식집	43.75
	여자	29	분식집	93.10	중국집	55.17	한식집	51.72
20대	남자	28	한식집	67.86	중국집	53.57	분식집	39.29
	여자	30	분식집	73.33	한식집	56.67	중국집	50.00
30대	남자	43	한식집	62.79	갈비집	41.86	중국집	41.86
	여자	33	한식집	51.52	분식집	48.48	경양식집	36.36
40대	남자	37	한식집	83.78	중국집	62.16	분식집	32.43
	여자	23	한식집	69.57	중국집	47.83	분식집	47.83
50대	남자	32	한식집	84.38	중국집	65.62	갈비집	37.50
	여자	18	한식집	83.33	중국집	50.00	한식부페	50.00

복수선택

는 한식부페점을 자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중고교생의 경우 패스트 푸드점 이용 횟수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소하고 면류점 이용은 증가한다는 보고¹²⁾와 일치하고, 여대생의 외식시 섭취형태가 분식류, 양식류, 한식류 순이라는 조사와¹⁰⁾ 여대생이 점심 때 자주 이용하는 음식점의 순위와 비슷하였으며, 여대생은 분식형태를 어머니는 한식형태를 선호하고¹³⁾, 어릴수록 서양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나이가 들수록 전통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¹⁴⁾와도 일치하였다.

Table 8은 저녁 때 자주 가는 음식점 3곳을 선택하는 경우 점심 때와는 달리 가장 자주 가는 음식점이 한식집(52.49%)이고 다음으로 갈비집(47.96%), 중국집(31.00%)순이었으며, 연령별로 보면 국교생은 역시 중국집(48.98%)이고, 중학생과 30대는 갈비집(58.00%와 59.74%), 고교생과 대학생은 분식집(62.

50%와 67.24%), 20대, 40대, 50대는 한식집(각각 52.46%, 77.05%, 78.26%)으로 역시 연령층에 따라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Table 9는 저녁 때 자주 가는 음식점을 순위별로 나타낸 것으로, 한식집과 갈비집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순위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비해 중국집은 학생층(국교생 남녀, 중학생 여자, 고교생 남자와 대학생 남자)만이 자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한식부페점은 국교생 여자와 50대 여자, 경양식집(고교생 남녀와 대학생 여자 그리고, 20대 여자)과, 햄버거점(고교생 여자)은 젊은 층이 자주 가는데 비해 횡집에는 장년층(20대 이상의 모든 남자와 40대 이상의 여자)이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외식을 자주 하는 국교생과 중학생은 저녁 때 자주 가는 음식점이 그들 부모 연령층인 30대~40대와 비슷한데 비해, 고교생과 대학생은 경양식

Table 8. 저녁에 자주 가는 음식점

(단위 : %)

	국교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N	49	50	40	58	61	77	61	46	442
스넥집	6.12	8.00	12.50	12.07	4.92	3.90	1.64	0.00	5.88
분식집	18.37	34.00	62.50	67.24	34.43	12.99	4.92	10.87	29.19
중국집	48.98	32.00	27.50	39.66	27.87	23.38	24.59	32.61	31.00
한식집	32.65	30.00	27.50	51.72	52.46	58.44	77.05	78.26	52.49
갈비집	44.90	58.00	30.00	6.90	47.54	59.74	65.57	65.22	47.96
일식집	8.16	0.00	0.00	8.62	4.92	15.58	9.84	21.74	9.05
한식부페점	28.57	18.00	7.50	5.17	8.20	22.08	34.43	32.61	19.68
양식부페점	20.41	12.00	5.00	1.72	0.00	1.30	3.28	0.00	4.98
경양식집	16.33	26.00	47.50	36.21	34.43	32.47	18.03	4.35	27.15
횃집	24.49	20.00	20.00	8.62	34.43	38.96	39.34	26.09	27.60
피자점	12.24	14.00	10.00	6.90	6.56	3.90	0.00	0.00	6.33
햄버거점	10.20	18.00	37.50	24.14	13.11	0.00	0.00	2.17	11.76
치킨점	12.24	18.00	7.50	6.90	6.56	2.60	1.64	2.17	6.79
족발집	10.20	4.00	0.00	3.45	14.75	16.88	4.92	4.35	8.14
쇠고기부페	6.12	4.00	0.00	6.90	3.28	6.49	11.48	10.87	6.33

복수선택

Table 9. 저녁에 자주 가는 음식점 순위

(단위 : %)

연령별	성별	N	1 순위		2 순위		3 순위	
			종류	%	종류	%	종류	%
국교생	남자	23	한식집	43.38	갈비집	39.13	중국집	34.78
	여자	26	중국집	61.54	갈비집	50.00	한식부페	30.77
중학생	남자	22	갈비집	50.00	한식집	36.36	분식집	36.36
	여자	28	갈비집	64.29	중국집	35.71	분식집	32.14
고교생	남자	18	분식집	66.67	중국집	50.00	경양식집	38.89
	여자	22	분식집	59.09	경양식집	54.55	햄버거점	40.91
대학생	남자	29	분식집	62.07	한식집	55.17	중국집	41.38
	여자	29	분식집	72.41	한식집	48.28	경양식집	41.38
20대	남자	29	한식집	58.62	갈비집	58.62	횃집	55.17
	여자	32	분식집	50.00	경양식집	50.00	한식집	46.88
30대	남자	43	한식집	65.12	갈비집	62.79	횃집	44.19
	여자	34	갈비집	55.88	한식집	50.00	경양식집	41.18
40대	남자	37	한식집	78.38	갈비집	59.46	횃집	40.54
	여자	24	한식집	75.00	갈비집	75.00	횃집	37.50
50대	남자	30	한식집	73.33	갈비집	70.00	횃집	33.33
	여자	16	한식집	87.50	갈비집	56.25	횃집	43.75

복수선택

Table 10. 점심 때 외식비용

(단위 : %)

	국교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N	46	45	47	61	58	74	61	49	441
천원이하	15.22	1.11	10.64	3.28	0.00	0.00	0.00	0.00	4.31
천~2천원	21.74	31.11	38.30	60.66	20.69	8.11	13.11	8.16	24.72
2천~3천원	26.09	20.00	23.40	16.39	29.31	16.22	29.51	36.73	24.26
3천~4천원	15.22	17.78	12.77	13.11	31.03	33.78	26.23	26.53	22.90
5천~만원	19.57	11.11	12.77	4.92	15.52	27.03	22.95	22.45	17.46
만원~2만원	0.00	6.67	2.13	1.64	3.45	13.51	6.56	4.08	5.22
2만~3만원	0.00	2.22	0.00	0.00	0.00	1.35	1.64	2.04	0.91
3만원이상	2.1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3

Table 11. 저녁 때 외식비용

(단위 : %)

	국교생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N	46	50	42	60	61	76	62	44	441
천원이하	4.35	4.00	7.14	6.67	0.00	0.00	0.00	0.00	2.49
천~2천원	15.22	16.00	23.81	36.67	9.84	0.00	1.61	4.55	12.70
2천~3천원	10.87	14.00	21.43	15.00	19.67	5.26	12.90	6.82	12.93
3천~4천원	23.91	14.00	4.76	21.67	14.75	15.79	16.13	25.00	17.01
5천~만원	34.78	32.00	26.19	16.67	34.43	34.21	45.16	36.36	32.65
만원~2만원	6.52	12.00	9.52	3.33	14.75	35.53	16.13	25.00	16.33
2만~3만원	0.00	4.00	4.76	0.00	6.56	6.58	8.06	0.00	4.08
3만원이상	4.35	4.00	2.38	0.00	0.00	2.63	0.00	2.27	1.61

집에 가는 비용이 조금 높아졌을 뿐 점심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주머니 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녁에도 역시 서양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남자보다 여자가 서양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4. 외식비용

Table 10은 점심 때 1인당 지출하는 외식비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71.88%)이 천원에서 4천원 사이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능력이 없는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은 천원~2천원 사이의 점심을 먹는 사람(각각 31.11%, 38.30%, 60.66%)이 가장 많은데 비해 부모와 함께 외식을 자주 하게 되는 국교생의 경우는 40대, 50대와 같이 2천~3천원 사이의 점심을 먹는 사람(26.09%)이 가장 많았으며, 20대와

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3천~4천원 사이의 점심을 먹는 사람(31.03%와 33.78%)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에서 대학생까지의 연령층에서 한 끼 식사비와 수입과는 서로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보고¹²⁾와 같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가족과의 외식 기회가 감소하는 반면에 끼니를 해결하거나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 비율이 높는데 비해(Table 5 참조) 경제력은 없기 때문에 천원~2천원 사이의 짤 음식을 먹는 비율(각각 31.11%, 38.30%, 60.66%)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Table 11은 저녁 때 1인당 지출하는 외식비용으로 5천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사람이 54%가 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심 때보다 저녁 때 외식비용으로 훨씬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과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는 저녁 외식 비로 5천~1만원을 지출하는데 비해 대학생은 점심 때

Table 12. 고객이 다시 찾는 이유 (단위 : %)

	남자	여자	전체
N	243	220	463
종업원 친절함	28.40	19.09	23.97
위생적이어서	41.98	45.45	43.63
음식 맛이 좋음	88.89	91.36	90.06
메뉴가 다양함	21.81	22.73	22.25
종업원이 예쁨	7.41	0.91	4.32
분위기가 좋음	29.63	33.64	31.53
실내장식 좋음	7.82	10.45	9.07
음식 가격이 싼	45.68	40.00	42.98
실내가 깨끗함	22.63	26.82	24.62
기타	1.23	1.82	1.51

복수선택

와 마찬가지로 1천~2천원 사이의 식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36.67%)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가장 활동적인 나이임에도 수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끼니를 해결하여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하지만 때로는 분위기 있는 장소에서 식사를 해야 할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에는 저녁에도 비싼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점심 때와 비슷한 식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30대는 저녁에도 역시 점심 때와 마찬가지로 외식비의 지출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만원~2만원 사이의 식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 것(35.53%)으로 보아 가장 왕성한 외식세대인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3. 고객이 다시 찾는 이유(연령별)

(단위 : %)

	학생층		청년층		장년층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N	68	81	61	61	114	78
종업원 친절함	29.41	20.99	29.51	16.39	27.19	19.23
위생적이어서	29.41	40.74	31.15	42.62	55.26	52.56
음식 맛이 좋음	80.88	88.89	91.80	90.16	92.11	94.87
메뉴가 다양함	19.12	18.52	27.87	31.15	20.18	20.51
종업원이 예쁨	16.18	2.47	6.56	0.00	2.63	0.00
분위기가 좋음	22.06	33.33	27.87	32.79	35.09	34.62
실내장식 좋음	10.29	11.11	3.28	13.11	8.77	7.69
음식 가격이 싼	57.35	45.68	52.46	31.15	35.09	41.03
실내가 깨끗함	27.94	27.16	19.67	34.43	21.05	20.51
기 타	1.47	2.47	3.28	1.64	0.00	1.28

복수선택

5. 음식점에 대한 선호 이유

Table 12는 한번 갔던 그 음식점에 다시 가게 되는 이유 3가지를 선택하는 경우에 전체적으로는 음식 맛이 좋음(90.06%)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위생적임(43.63%)과 음식가격이 싼(42.98%) 그리고, 분위기가 좋음, 종업원이 친절함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에 들어온 손님이 음식을 먹고 나서 잘 먹었다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조건들은 편안한 분위기, 친절한 서비스, 다양한 메뉴, 기호에 맞는 요리, 그리고 적당한 가격 등¹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가는 이유로서는 역시 제일 먼저 음식 맛이 좋아야 한다고, 다음으로 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이 처리되는 것이었으며, 세번째는 음식의 질과 받을 수 있는 모든 서비스의 가치보다 음식 가격이 싼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은 한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가게 되는 이유를 연령별로 나타난 것으로서 제 1순위는 모든 연령층에서 음식맛이 좋기 때문이었으나, 2순위에서는 연령층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학생층과 청년층 남자는 음식가격이 싸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비해 청년층 여자와 장년층은 위생적이어서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여자는 3~4순위에서 음식 가격이 아니라 실내장식이 마음에 들거나 분위기가 좋기 때문이라고 하므로서 분위기에 민감함을 나타내었다.

뿐만 아니라 외식동기도 끼니를 떼우거나 친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자주 가는 음식점도 비싸지 않은 곳이 많지만, 남자는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기회가 여자보다 많은데 비해 아직까지 경제적인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다른 연령층은 남자들이 음식 가격에 더 관심을 갖는데 비해 장년층의 여자는 Table 13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자보다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나이가 많아질 수록 여성 취업율의 감소로 가용 소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대부분 음식값을 지불하는 가족외식이 줄어들면서 본인들이 지출해야 하는 모임 등은 늘어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외식을 하는 시기는 여대생과 50대 여자를 제외한 전연령층이 점심보다 저녁에 외식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 동기는 국교생과 중학생 그리고 이들의 부모에 해당하는 30대는 가족외식을 할 때, 고교생과 20대는 친구를 만날 때, 그리고 40대와 50대는 모임이 있을 때 외식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은 끼니 해결과 친구를 만날 때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외식을 하는 기회가 다른 연령층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점심 때 가장 자주 가는 음식점으로는 국교생이 중국집, 중학생에서 대학생까지는 분식집, 그리고 2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한국집이었으며, 저녁에는 국교생은 역시 중국집, 중학생과 30대는 갈비집, 고교생과 대학생은 분식집, 그리고 20대와 40대 이상은 한식집에 가장 자주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점심 때 외식비는 응답자의 71.88%가 1천~4천원 사이인데 비해 저녁 때는 50% 이상이 5천원 이상인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점심 때보다 저녁 외식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대학생은 점심이나 저녁 모두 1천~2천원 사이의 저렴한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가는 이유와 가지 않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음식의 맛과 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처리, 그리고 가격순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연령과 성별 뿐만 아니라 직업, 지역,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여기에는 지면 관계상 연령과 성별에 대한 결

과만을 게재하였으며, 앞으로 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식산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요 약

부산시민의 외식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국민학교 4학년 이상의 남녀 464명을 대상으로 외식성향(때, 동기, 자주 가는 음식점의 종류, 비용, 선호도 등)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외식은 점심 때보다 저녁에 더 많이 하며, 외식을 하는 동기는 가족끼리 외출을 하였을 때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모임이 있을 때와 친구를 만났을 때 순이었다. 점심 때 자주 가는 음식점으로는 분식집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집과 한식집 순이었으며, 저녁 때는 한식집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갈비집과 중국집 순으로 점심 때와는 차이가 있었다. 외식비로 지출하는 1인당 비용은 점심 때는 전체의 71.88%의 사람들이 4,000원 이하의 음식을 먹는데 비해 저녁에는 54% 이상이 5천원 이상을 지출하여 점심 때보다 저녁 때의 외식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번 갔던 음식점에 다시 가는 이유로는 음식맛이 좋기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위생적이기 때문과 음식가격이 싸기 때문 순이었으며, 다시 가지 않는 이유로는 역시 음식 맛이 없기 때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위생적과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연령과 성별 뿐만 아니라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한국도시행정연구소 편 : 1993 전국통계년감, 신관출판사(1993)
2. 통계청 : 1992 도소매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1993)
3. 田村眞八郎 : 日本人の食生活と外食産業, 醸協, 86(7), 500(1991).
4. 손일락 : 미래의 식당경영, 형설출판사(1993)
5. 齋藤浩 : 外食頻度の増大とメ-カ-. シ-ズ, 食品工

- 業, 1上, 48(1986).
6. 김현희 : 외식서비스산업, 한국마케팅연구실 (1990)
 7. 사조사 편 : '92 식품년감, 사조사(1992)
 8. 김두진 : 외식산업에서의 프랜차이즈 시스템 가맹점에 대한 소비자 의식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7(1), 36(1994).
 9. 김수영 : 알기 쉬운 데이터베이스 통계소프트웨어, 정보문화사(1993).
 10. 강남이, 조미숙 : 식품영양학 전공 여대생과 비전공 여대생의 외식산업식품에 대한 식생활 태도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5(2), 150(1992).
 11. 한국외식산업총합센터 : 월간 식당, 8, p54 (1994).
 12. 남순란 : Fast foods의 이용실태조사 및 영양적 균형평가를 위한 연구-안동시내 남녀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라전문대학 논문집, 제15집, 309 (1991).
 13. 강남이, 조미숙 : 여대생과 그들 어머니의 외식산업에 대한 식생활 태도 조사, 4(1), 45(1991).
 14. 나영아, 윤은숙 : 서양음식의 외식에 관한 연구(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품영양학회지, 4(2), 187(1991).
 15. 월간 식당 편 : 집객 서비스 백과, 청림출판, p10 (1988)

(1994년 9월 27일 수리)